

제 4 강 : 십자가를 지는 지도자

- 스데반과 예수님의 제자들

지도자의 특징은 십자가를 지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 없고 용서 없는 화해가 없듯이 고난을 치르지 않는 지도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열 두 제자들도 거의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분명하게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의 꽃입니다. 그의 믿음은 순결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죽음 앞에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19-21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현대교회의 비극은 이러한 순교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목사도 많고 재정도 넉넉한 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들의 리더십에 순교의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스데반

1. 스데반은 초대 교회의 평신도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삼천 명, 오천 명 단위로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들의 성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최초의 일꾼 집사들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영적인 일을 전담한 반면 그 집사들은 행정과 구제와 봉사를 전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는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선택된 집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행정과 구제와 봉사의 차원을 넘어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이 말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사로서의 몫을 겸손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2.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변론할 때도 그의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의 삶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흘러 넘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력은 지도자의 인격과 믿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매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도력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십은 최정상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리더십과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리더십입니다.

3.스데반은 말씀에 분명히 서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변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돌로 쳐죽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로 하여금 순교하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다른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4.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 예수님의 제자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밧모섬으로 유배당한 사도 요한과 자살한 가룟 유다만 빼고 거의 다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베어 죽었고(행12:2)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매는 알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져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살해되었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한 탑에서 떨어져 죽었고 다대오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셀롯인 시몬은 페르샤만 근처에서 폭도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진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3. 사도 바울

1. 사도 바울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1:8-9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

2.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11:22-29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 나도 그러하며 (23)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강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

3. 그는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로마서9:1-3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2) (1절과 같음)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

4.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력

1. 영적 지도력에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참된 지도력은 지도자의 값비싼 대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특징은 순교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핍박을 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비판이나 모함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2. 영적 지도력에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받되 원망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영적 지도력에는 순교의 영이 있습니다.

순교란 순결입니다. 죽음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요 죽음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게 합니다. 순교란 가장 위대한 행동인 것입니다.